



# 부름소리

정경향

1

어른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굉장히 기쁜 일이 생기면 《가슴이 벅차다.》고 말합니다.

바로 한해전에 우리 할아버지도 대동강반에 돛배모양으로 멋지게 일떠선 새집으로 이사하는 날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할아버지를 닮아서일가요? 아니면 벌써 어른이 될걸가요? 나의 작은 가슴에서도 어느때와는 달리 《두근두근, 쿵- 쿵.》하고 이상한 소리가 울려나왔거든요. 또 누가 바람을 불어넣어주기라도 하듯 활랑대기도 했구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것은 우리 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다 모인 학과경연총화모임에 참가한 때부터였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교장선생님이 주석단앞에 나온 나를 아이들에게 소개하며 《이번 4학년학과경연에서 1등을 한 김금송학생을 열렬히 축하해줍니다.》하고 말씀하신 때부터였습니다.

교장선생님의 말씀이 끝나기 바쁘게 온 학교운동장이 떠나갈듯 우렁찬 박수소리가 터져올랐습니다.

박수를 치는 아이들속에는 유치원에서 엇그제 새로 입학한 신입생들의 부러움에 찬 얼굴들과 선망에 찬 소년단원들의 모습도 보입니다.

어느새 교장선생님이 내곁에 다가오시여 주석단 한가운데로 나의 등을 떠미시였습니다.

교장선생님은 바싹 긴장해져 두볼이 능금알처럼 빨갱게 물든 나를 보시더니 입가에 알릴듯말듯 한 미소를 띄우시였습니다. 그러시다가 한손으로는 나의 어깨를 조용히 감

싸쥐고 또 한손으로는 마이크를 나의 입가에 가져다대시였습니다.

교장선생님은 귀속말을 하듯이 조용한 목소리로 나에게 말씀하시였습니다.

《금송학생, 학년적인 학과경연에서 1등한 기쁨에 대해서 또 공부를 잘할수 있게 된 경험에 대해서 여기 모인 모든 동무들에게 크게 이야기해보세요.》

순간에 나의 두눈은 왕방울만큼 커졌습니다. 나는 마이크를 통해 방송으로 크게 증폭되어나오는 목소리가 나의 목소리인지도 가늠하지 못한채 또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떠뜸떠뜸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복습과 예습을 정상적으로 하는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참고서들과 상식책도 즐겨보았다는 이야기, 대학의 이름난 교수인 할아버지에게서 숙제검열까지 받는다는 이야기들을 어느새 다 했는지도 미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맨 나중에 공부를 더 잘해서 우리나라를 빛내이는 박사동이, 영웅동이가 되겠다고 동무들앞에서 큰소리로 결의다진 일이며 결의가 끝나자바람으로 또다시 우렁찬 박수갈채가 터진 일이며는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후에도 나의 가슴은 또다시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주석단에 나선 나를 부러워서 바라보던 아이들의 모습이, 정겨움에 넘쳐 다정하게 바라보시던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교선생님들의 눈길에 눈앞에 어려와 도무지 마음을 진정할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학과경연에서 1등을 해서 학교안의

모든 학생들앞에서 경험토론도 하고 또 굉장한 칭찬과 우렁찬 박수갈채를 받아본 아이는 학교적으로 한두손가락에 꼽힐가말가 할것입니다.

이렇게 기쁜 일이 나에게 생겼다고 생각하니 모든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나보다 먼저 집으로 날아가게 할수는 없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소식을 아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나를 개신장군마냥 맞아주시게 말입니다.

아마 이 소식을 아시면 할아버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하실것입니다.

《내 손주녀석이 글썄 학과경연에서 1등을 했다는만. 학교애들이 다 모인데서 칭찬까지 받았던지...》

할머니는요, 《어이구, 우리 금송이가 정말 용쿠나. 꼭 제 아버지를 닮았다니까... 내 오늘 네가 좋아하는 닭알지집을 듬뿍 해주마. 앞으로 공부를 더 잘해서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돼야 한다.》

우리 아버지도 몇해전에 가치있는 발명을 해서 기업소에서 진행된 혁신자축하무대에서 꽃다발도 받고 또 《로동신문》에 사진까지 받쳐실린 설계연구사입니다. 우리 온 집안식구들은 아버지를 자랑으로 여긴답니다.

이런 훌륭한 아버지처럼 살려는것이 나의 마음이구요.

아마 이 소식을 듣고 제일 기뻐하실분도 아버지와 어머니일것입니다.

저 멀리 세포등판에서 아버지, 어머니는 이렇게 기뻐하실것입니다.

《여보, 우리 금송이가 학과경연에서 1등을 했다고 이렇게 편지가 왔어요.》

《뭘?! 우리 금송이가? 어디 좀 보지요. 우리 아들이 정말 용탄 말이요. 힘을 주거던. 오냐, 아버지, 어머니도 일을 잘하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결에서 우리 어머닌 너무도 기쁨에 겨워 우실지도 모릅니다. 나를 품에 와락 그러안듯 편지를 가슴에 꼭 그러안고 말입니다.

갑자기 평곳 떠오르는 생각에 나는 깊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집에 가면 할머니에게 줄라야지, 빨리 기쁜 소식을 아버지, 어머니에게 알려드리자고... 편지를 쓰자고 말이야....)

나는 벌써부터 아버지, 어머니에게 보낼 편지의 내용에 대해서까지 골똘히 생각했

습니다.

《금송아, 넌 정말 좋겠다야.》

《마이크앞에 서니까 마음이 어땡던?》

《네가 주석단앞에 나섰을 땐 딱 단위원 장형님갈더라야.》

호기심과 부러움에 찬 아이들의 목소리가 연방 나의 귀전에 날아들었습니다. 수업시간이 다가왔지만 나는 철새없이 종알대는 아이들의 포위속에서 풀려나올수 없었습니다. 교실문이 열리고 선생님이 들어오셔서야 아이들은 재빨리 흩어져갔습니다.

음악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제 배운 노래를 잘 연습해왔습니까?》

선생님의 정다운 눈길이 우리들의 얼굴을 한명한명 다정하게 더듬고있었습니다.

손을 높이 쳐든 아이, 괜히 싱글싱글 웃어보이는 아이, 어깨를 움츠린채 앞동무의 몸뒤로 슬그머니 숨는 아이, 애꿎은 머리만 굽적이는 아이...

《금송학생!》

선생님은 손을 제일 높이 쳐든 나를 지명하시였습니다.

《옛!》

나는 용수철 튀기듯 자리에서 일어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가 첫걸음마 떼여준  
정든 고향집뜨락 조국이여라  
누구나 소중한 그 품은 조국  
...

조용조용 입속으로 따라부르던 학급동무들이 점점 소리를 높여서 3절부터는 합창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윽고 노래가 끝나자 선생님의 목소리가 또다시 울렸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한가지 물겠습니다. 참매는 어떤 새입니까?》

노래소리로 떠나갈것만 같던 교실안은 순식간에 물뿌린듯 조용해졌습니다.

《대롱학생!》

선생님의 지명을 받은 대롱이가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한참이나 주위에 있는 아이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혹시나 누가 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

입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결단성있게 말했습니다.

《핑잡는 새입니다.》

그러자 폭소가 터졌습니다.

《왜 웃어!》

순간 푹 멎었던 웃음소리가 더 크게 이어졌습니다.

(쳇, 엉터리같은거. 그것도 몰라?)

나는 아직도 멧적게 서있는 대통령을 민망스러운 눈길로 보았습니다.

《금송학생이 어디 한번 말해보세요.》

좁전보다 더 정답고 살뜰한 선생님의 목소리입니다.

나는 성급히 일어나며 큰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참매는 우리 나라의 국조입니다. 국조는 그 나라의 넋과 기상을 상징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참매를 우리 나라의 국조로 정해주셨습니다.》

나의 대답이 끝나기 바쁘게 요란한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선생님은 내 어깨우에 다정히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송학생이 정말 대답을 잘했습니다. 동무들! 우리는 금송학생처럼 배운 내용뿐 아니라 여러가지 상식들도 많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풍부한 지식을 소유한 학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아이들은 모두가 청높이 대답했습니다.

《금송이는 모르는게 없구나.》

《무엇이나 다 대답하는 박사야, 척척박사!》

《아, 그러길래 온 학교앞에서까지 칭찬 받지.》

수업이 끝나자 또다시 내곁에 모여든 아이들이 저저마다 비행기를 태워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추어올릴 때마다 내 어깨는 저도 모르게 한뼘씩이나 솟구쳐올랐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선생님에게서 칭찬을 받고 동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비결은 뭐니뭐니해도 공부를 잘하는데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공부를 잘해보세요. 10대, 20대에 누구나 부러워하는 박사도 될 수 있습니다.

(아차, 내가 왜 이려고있담, 빨리 집으로 갈 생각은 하지 않구.)

병실병실 웃으실 할아버지모습, 상글상글 웃음지으실 할머니모습이 눈앞에 안겨와 나의 마음은 어느새 집으로 쏠살같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자- 아- 필갑동무, 교과서동무, 빨리 빨리 집으로 갑시다- 아-》

손에 잡히는대로 책상우의것들을 가방에 넣던 나는 갑자기 그 자리에 푹 굳어지고말았습니다.

《아차! 오늘 우리 소년단반이 교실청소 당번이지! 하마트면 잊을번 했는데...》

우리 할머니가 이자 나의 모습을 지켜봤더라면 또 혀를 찰을겁니다.

《에그, 그 입에서는 그놈의 〈아차〉 소리가 그저 떨어질줄 모르는구나. 그렇게 덤비고서야 무슨 일인들 옳바로 하겠니.》 하구 말이예요.

나는 피식 웃으며 아쉽게도 어깨에 걸쳤던 가방을 의자우에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조금만 참자. 청소를 멋들어지게 해치우고 집으로 달려가면 되지 뭐.)

나는 청소함앞으로 성큼 다가가 남먼저 밀대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거울처럼 알른알른하게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금송동무! 밀대를 이리 쥐, 내가 할게.》

소년단반장 예림이가 다가와 머루알같이 까만 눈을 깜박이며 나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됐어, 거의다 했는데 뭐. 이젠 내가 할테니 동무는 책상줄이나 맞춰.》

곁에 있던 여자애들이 키득키득 웃었습니다.

나는 그 애들이 왜 웃는지 대뜸 짐작했습니다.

여느때같으면 예림이가 찰떡같이 달라붙어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시시콜콜히 지시했다 해도 이렇듯 앞장서서 사기나게 해치우지는 못했을겁니다. 밀대질을 다 끝낸 후 나는 성큼성큼 휴지통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것두 내가 처리해야지, 가만가만...》

문득 떠오른 좋은 생각에 나는 가방을 열어제끼고 그안에서 파란 비닐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엇그제 동무들과 나눠먹으라고 할머니가 사과를 넣어주었던 주머니였습니다.

나는 휴지통안의것을 말끔히 그 비닐주머니에 이사시켜놓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버리면 시간을 앞당길수 있었거든요.

다시 가방을 둘러멘 나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이 불어와 한껏 달아오른 나의 마음을 기분 좋게 식혀줍니다.

나는 저도 모르게 코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구름우엔 참매날고 목란꽃 핀 이 강산

...

지나가던 중학생누나들이 구슬처럼 반짝이는 눈으로 정답게 바라봅니다.

《저 엘 좀 봐! 노래를 정말 잘하지?》

《오, 저 애! 노래뿐인줄 아니? 공부도 펄쩍 날게 잘한다.》

들을수록 정말 사기입니다.

나는 씩씩하게 두팔을 흔들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니까?! 내 오른손에 대롱대롱 매달려 시계추처럼 왔다갔다하는 이 파란 주머니... 주머니안에 들어있는 모든것이 뻘뻘하게 다 들여다보입니다. 막 구겨진 종이뭉치며 꺾어진 연필자루들, 다 쓰고 버린 지우개며 크레용곽들따위에다가 빨강고 노랑고 알락달락한 사랑비닐조박까지... 그야말로 오가잡탕입니다.

나의 얼굴은 순식간에 잘 익은 도마도빛으로 변했습니다.

선생님은 교실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쓰레기들을 아무데나 버려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봉 뜯 기분에 생각없이 들고나온 이 주머니를 어떻게 학교까지 다시 들고 가겠습니까? 집에까지 들고갈수는 더욱 없고...

주머니를 등뒤에 감추고 여기저기 살펴보던 나는 순간 무릎을 살짝 쳤습니다.

《웁지!》

다행히도 팽이처럼 돌아가는 머리덕분에 내 손에 있던 파란 주머니가 온데간데없이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나의 기분은 고무풍선마냥 또다시 등등 떠올랐습니다.

눈앞에는 형제처럼 나란히 서있는 멧쟁이 우리 아파트가 바라보입니다.

### 3

우리 할아버지는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대학생형님, 누나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우리 할아버지를 《강좌장선생님!》, 《박사선생님!》하고 부릅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다정한 우리 할아버집니다.

창밖은 어느새 캄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아직도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할머니는 인민반회의에 가셨구요.

《똑똑똑...》

드디어 할아버지의 손기척소리가 울립니다.

나는 뒹겨난 고무공처럼 달려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해해해!》

이렇게 멥랑하다구야. 문밖엔 할아버지가 아니라 내 동생 금일이가 새물거리며 서있었습니다.

동생은 소학교학생인 나보다 네살이나 아래인 유치원생입니다. 온 집안사람들이 막 내막내하며 어루만져주니 점점 응석받이, 장난꾸러기가 되어갑니다.

집안에 들어온 금일이가 갑자기 바지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그속에서 무엇인가를 한가득 꺼내놓았습니다.

(저게 뭐야?)

가까이 다가가보니 사랑비닐쫂박과 에스키모봉지따위들이었습니다.

《야, 이 코홀리개야, 넌 이걸 먹었다구 형한테 자랑하러 가져왔니? 다 먹은거야 버리고 들어와야지.》

나의 혼시질에 동생은 발끈해서 대답했습니다.

《아무데나 망탕 버리면 되니? 그런 아이는 나쁜 애라고 우리 선생님이 말했는데 뭐!》

《요게 벌써부터 말대답질이야.》

동생앞으로 바투 다가간 나는 주먹을 흔들며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이때였습니다.

《우리 집 망아지들이 왜 뽀이 났나?》

기다리고기다리던 할아버지가 오셨습니다.

《할아버지!》

금일이가 벌떡 일어서서 할아버지품에 안겼습니다.

《할아버지, 형은 나빠요. 난 좋은 일을 했는데 큰소리만 치면서 막 못살게 굴어요.》

금일이는 울상이 되어 할아버지에게 미주알고주알 다 일러바쳤습니다.

《좋은 일? 저런, 우리 막내를 칭찬해줘야겠구나. 그래 무슨 좋은 일을 했냐?》

금일이는 제껴 사랑비닐쫂박과 에스키모봉지를 랑손에 갈라쥐고 어줍게 웃으며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요거야요. 난 이 오물을 아무데나 망탕 버리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흡족한 웃음이 피여올랐습니다.

《어이쿠, 우리 금일이에게 빨간 별을 줘야겠군. 왕별을 말이다.》

어느 순간에 매여달렸는지 할아버지무릎에 찰떡같이 붙어앉은 금일이는 터진 팔자루같은 입을 다물줄 모릅니다. 나는 아래입술을 삐죽하게 내밀었습니다. 그쯤한것이 뭐 그렇게 큰거라구 저렇게 대단해할가? 차라리 섹세기공부를 잘했다고 자랑했으면 나도 동생을 칭찬했을겁니다.

그건 그렇고, 동생의 그런 시시한 일도 칭찬하시는 할아버지가 이제 내 자랑거릴 들으시면 아예...

내 속생각을 들여다보기라도 했는지 《우리 금송이한테도 무슨 자랑이 있는 모양이다?》하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울렸

습니다.

드디어 나는 그동안 안타깝게 감춰두고있던 나의 큰 자랑을 할아버지한테 신이 나서 털어놓았습니다.

《로친! 들었소? 우리 말손자가 학과경연에서 1등을 했다는만. 이런 기쁜 일이 또 어데 있소. 뭘하고있소? 애한테 한상 잘 차려줘야지.》

뒤늦게야 들어온 할머니도 너무 기뻐 들썩이는 할아버지처럼 온 집안이 환해지도록 웃었습니다.

금일이가 울롱한 눈으로 우리 셋을 번갈아봅니다.

《우리 금일이는 언제 형님처럼 될가?》

할머니는 얼룩진 금일이의 얼굴을 앞치마로 닦아주시고나서 그 애 손에 있던 비닐쫂박들을 빼앗았습니다.

《금일아, 이담엔 형처럼 더 큰 자랑을 안고오렴.》

할머니의 이 말씀에 할아버지가 안경을 벗어들며 말했습니다.

《로친, 우리 금일이가 얼마나 큰일을 했게 그런 혼시오. 우리 막내 오늘 작아도 아주 큰일을 했단 말이요. 애국동이라고 말할 수 있지. 이제 보오, 우리 금일이가 커서 큰일을 하지 않나.》

나도 할머니도 둥그래진 눈으로 할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우리 평양에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구락부, 옥류아동병원... 멋지고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얼마나 많이 일떠섰소. 또 우리 사는 이 집은 어떻게?... 원수님의 사랑속에 온 나라가 말그대로 행복의 꽃동산이 되어간단 말이요. 그러니 우리 금일이처럼 아름다운 이 거리를 깨끗하게 거두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하오. 그래 이런 애가 큰사람이 못된단 말이요? 우리 막내인 꼭 아버지, 어머니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될거요.》

나는 입속으로 조용히 외워보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처럼?...

내가 전에 말한적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 《로동신문》에 크게 소개되었었습니다.

어느 한 설계연구소에서 연구사로 일하던 아버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더 훌륭한 식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기 위해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몸소 맡기하셨다는 소식에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다음날로 자진하여

세포등판으로 달려나갔고 의사인 어머니도 아버지를 따라 현장치료대에 탄원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애국자부부라고 부릅니다.

나는 초저녁부터 굳잠에 든 동생을 슬그머니 내려다보며 되뇌이었습니다.

(애국동이?...)

×

어제 아이들이 그렇게도 멋지게 태워줬던 《비행기》는 날이 밝자 나를 내려놓고 저멀리 아득한 구름속으로 사라지고말았습니다.

시들한 걸음으로 학교길에 오른 나는 공업품상점을 지나다가 우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는 공업품상점과 리발소사이에 나있는 좁은 구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바로 거기에 어제 내가 슬쩍 가져다놓은 주머니가 있을것입니다.

순간 나의 얼굴은 저도 모르게 화끈화끈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석에 끌리는 쇠붙이처럼 어쩔수없이 발뻠발뻠 다가갔습니다.

...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들어섰습니다.

(만약 선생님이 아신다면 얼마나 실망해하실까. 또 동무들은...)

보나마나 동무들은 《정말 량심이 없다야. 저런 한심한 애가 주석단앞에 나서서 축하까지 받다니...》 하고 비웃어댈것입니다. 동무들 보기조차 두려워졌습니다.

아닐세라 첫 수업이 끝나 밖에 나갔던 내가 어슬렁어슬렁 복도로 들어서는데 대통령이 급히 마주왔습니다. 무슨 일때문인지 그

엔 무척 밝은 얼굴이었지만 날 비웃기도 하고 노려보기도 하는것 같았습니다.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 보기가 무서워진다면 할아버지의 말씀이 정말 옳은것 같습니다.

《금송아, 선생님이 널 찾아.》

《뭘, 나를?!...》

내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겁에 질린 목소리가 훌쩍 튀어나왔습니다.

《왜... 찾니... 응?》

《잘 모르겠는데 웬 엄마가 찾아와서 네 이야기를 하는것 같더라.》

(아이쿠, 끝내...)

나는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정말 야단이었습니다. 내 이야기라는것은 보나마나 그 파란 주머니소릴것이고... 근데 그 엄만 누굴까?

아마도 내가 몰래 하는 행동을 어디선가 다 지켜봤을 어느 어머니일것입니다.

영겨주춤이 교실에 들어서니 선생님과 얘길 나누던 그 어머니가 날 보고 소리쳤습니다.

《웁아요. 저 애가 틀림없습니다, 선생님!...》

그 어머니님 다름아닌 공업품상점 점장어머니였습니다.

나의 얼굴은 모닥불을 뒤집어쓴듯 더더욱 달아올랐습니다. 아니,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들고싶어했습니다. 그렇다고 선생님과 동무들이 다 보는데 밖으로 달아날수도 없는 일이고...

내가 몸둘바를 몰라 이쪽저쪽 구석만 살피는데 아니 글썄 이게 무슨 소립니까.

《참, 이 앤 얼마나 훌륭한 앤지 모릅니다. 아까 학교에 오면서 우리 상점 한구석에 있던 휴지랑 비닐쫌박이랑 담배꽂초까지 하나하나 주어 멀리에 있는 휴지통에 가져다버리는게 아니겠어요.》

(영?!...)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아까 오면서 들리니 내가 버렸던 비닐주머니는 그 자리에서 없어졌습니다. 하도 미안하고 량심에 찢리어 주변에 있던 종이며 비닐쫌박이랑 담배꽂초랑 몇개 주어다 버렸는데...

우리 반 애들이 슬렁거리며 점점 모여들었습니다.

점장어머니는 내 머리를 살뜰하게 쓰다듬으며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제 그때 창문을 통해 다 내다봤습니다.



사실 별다른 것 같지만 스스로 좋은 일을 하는 때가 얼마나 기특하던지. 2층에 있지 않았더라면 달려나가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마침 이쪽으로 올 일이 있기에 이렇게...》

이어 돌아가는 점장어머니를 바래워주고 돌아서던 선생님은 갑자기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칭찬받을 때처럼 떳떳하고 자랑스레 머리를 번쩍 쳐들고 있어야 할 내가 죄스러운듯 어쩔바를 몰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니 금송이, 어디 아파요?》

하지만 대답을 못 드리고 고개만 더 수그리고 있던 나는 간신히 떠듬거렸습니다.

《저... 전... 사실 나쁜짓을 했더랬는데...》

《응?... 나쁜짓?!》

동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 바람에 나의 머리는 더더욱 수그러졌습니다. 그렇지만 난 인차 용감하게 머릴 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어제 저지른 잘못이랑 동생이 애국동이라고 칭찬받은 얘기랑 다 했습니다.

《그랬었군요. 이제 알만 해요. 자, 동무들, 우리 금송이가 얼마나 장해요. 사람이란 더구나 어린 학생시절엔 칭찬받을 수도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제때에 씻을 줄 아는 사람이라야 앞으로 솔직하고 성실한 사람, 참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법이에요.》

선생님의 다정하면서도 걱정에 넘친 말씀

을 들으며 나의 귀가엔 할아버지의 목소리도 귀따갑게 울려왔습니다.

《아름다운 이 거리를 깨끗하게 거두려는 그 마음이 얼마나 기특하오... 꼭 아버지, 어머니처럼 훌륭한 사람이 될거요...》

선생님의 말씀까지 다시금 새겨들으며 나는 앞으로 계속 공부를 잘하고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하는 선군시대의 참된 애국동이가 되리라 마음다졌습니다.

나의 마음과 결심을 다 아신듯 선생님은 《금송학생!》하고 조용히 부르시며 두어깨를 잡아주시었습니다. 순간 그 따스한 손길에서 선생님의 기대어린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오는 듯했습니다.

나의 가슴은 다시금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밝고 밝은 해님이 높이 떠올라 우리의 정든 학교와 마을, 거리를 아름답게 비쳐주고 있습니다.

문득 저 멀리 하늘가에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듯 합니다.

《귀여운 아이들아! 이 하루도 5점꽃이랑 애국의 고운 꽃이랑 활짝 피우거라!》

할아버지의 목소리일까요? 아버지, 어머니의 목소릴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세요. 그러면 들려올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는 정다운 목소리, 참된 아들딸들을 부르는 조국의 목소리가...